

甲骨文字에 나타난 殷商代 '酒' 文化 小考*

朴興洙, 崔允瑄**

<目 次>

1. 序言
2. 酒의 起源과 用途
 - 1) 起源
 - 2) 用途
3. 殷商代의 飲酒文化
4. 殷商代의 酒器
 - 1) 盛酒器
 - 2) 飲酒器
 - 3) 盪酒器
5. 結語

1. 序言

본 논문은 甲骨文字에 나타난 음주 관련 한자의 자형 분석을 통해 殷商代 酒文化를 연구하는데 목적을 둔다. 본 연구는 갑골문자를 통해 殷商代 文化를 고찰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문화연구와는 차이점을 나타낸다.

중국인은 '衣食住' 중 '食'을 가장 으뜸으로 꼽을 정도로 먹는 것을 중요시 여긴다.¹⁾ 음식문화중 酒는 神에게 올리거나 貴賓을 접대하는데 사용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음식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겼으며, 특히 殷商代에는 각종제사와 관련된 중

* 이 논문은 2014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하여 작성되었음.

**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언어문화학부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중어중문학과

1) 《漢書·酈食其傳》“王者以民爲天,而民以食爲天。(왕은 백성을 하늘처럼 여기고, 백성은 먹을 것을 하늘처럼 여긴다.)”

요한 기능을 담당하였다. 중국은 술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고대부터 현재까지 술은 중국인의 생활양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갑골문 卜辭를 비롯해 많은 古典, 詩歌 등에서 술에 관한 묘사를 발견할 수 있으며 여러 문학작품 속에서 술과 관련된 부분을 볼 수 있다.²⁾ 祭需로 시작한 술 문화는 수천 년을 이어 오면서 물질생활, 정신생활, 사회교류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생활양식, 문학, 사상, 언어, 문자 등 여러 방면에 영향을 주었다.

갑골문은 중국 최초의 역사시대인 商代人들의 기록으로 줄곧 중국의 古文字와 古代史연구, 특히 商代의 文字·歷史·文化 연구의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실증資料가 되어 왔다.³⁾ 또한, 殷商代 유물의 출토는 당시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는데 특히 많은 종류의 殷商代 酒器 출토는 당시 술을 좋아했던 사회현상을 알려주는 중요한 근거자료이다.

갑골문자의 字形은 객관적인 실상을 반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의 주관적인 형상도 반영하고 있다. 造字과정에는 당시 사람들의 의식뿐 아니라 생활과 밀접한 문화 현상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갑골문 字形의 연구는 殷商代 문화연구의 초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殷商代의 文化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갑골문 자형 구조분석과 本義 탐구는 반드시 필요한 선행과제이다. 본고에서는 酒와 관련된 갑골문자와 기물을 통해 殷商代 문자와 문화의 상관성을 연구하는데 중점을 둔다.

2) “清明時節雨紛紛，路上行人欲斷魂，借問酒家何處有，牧童遙指杏花村”은 唐 杜牧 “欲持一瓢酒，遠慰風雨夕，落葉滿空山，何處尋行跡”은 唐 韋應物的 詩〈山中道士〉의 일부이다. “五花馬千金裘，呼兒將出換美酒，與爾同鎖萬古愁”는 唐 李白的 詩〈將進酒〉의 일부이다. “清風徐來 水波不興 舉酒屬客 誦明月之詩 歌窈窕之章” 宋 蘇東坡의〈赤壁賦〉의 일부이다.
3) 胡厚宣, 《殷墟甲骨文引論·序》, (長春: 東北師範大學出版社, 1993), 27쪽.

2. 酒의 起源과 用途

1) 起源

술의 기원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다. 첫째, 문헌기록에 의한 기원과 둘째, 실증적 고고학의 증거자료에 의한 기원이다. 술의 기원을 살펴보면 채집경제의 원시시대부터 자연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채집을 해온 植物果實이 일정시간이 지나자 공기 중에서 자연 산화되고 발효되어 술이 되었고, 이후 농사에 의존하며 생활을 유지하던 농경시대에는 곡물이 자연적으로 발효되어 술이 되었다.⁴⁾ 중국에 현존하는 古書중에 술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책이 거의 없는데 釀酒의 기원은 여러 문헌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世本·作篇》, 《太平御覽》: “儀狄始作酒醪 變五味. (의적이 처음으로 술을 만들었는데 五味로 변화시켰다.)”

《戰國策·魏策二》: “昔者, 帝女令儀狄作酒美, 進之禹, 禹飲而甘之. (옛날 황제의 딸이 의적으로 하여금 술을 만들게 했는데 맛이 좋아서, 禹 임금에게 바치니 禹가 맛을 보고 그것을 달게 여겼다.)”

《呂氏春秋》: “儀狄作酒. (의적이 술을 만들었다.)”

《博物志》: “杜康作酒. (두강이 술을 만들었다.)”

《酒史》, 《酒經》: “杜康始作秫酒. (두강이 처음으로 秫酒⁵⁾를 만들었다.)”

《說文解字·巾部》: “古者少康初箕作帚, 秫酒. 少康, 杜康也. (고대 소강이 처음으로 키와 비, 秫酒를 만들었다. 소강은 두강이다.)”

《黃帝內經》: “天上有酒三星 酒的制作与天地同. (하늘에는 酒三星이 있으니 술을 빚는 것은 천상이나 지상계가 같다.)”

儀狄과 杜康은 夏代 禹시기 인물로 釀酒의 발명자로 전해지고 있으며 천상에서

4) 《尚書·酒誥》“有飯不盡, 委余空桑, 鬱積成味久蓄氣芳. 本出於此 不由奇方. (밥을 다 먹지 못하고 남겼을 때 그 나머지를 빈 뽕나무에 버렸더니 쌓여서 향기가 나고 맛을 가지게 되어 오래두니 향기로웠다. 이때 그 내용물을 꺼내면 되니 그야말로 기이한 방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5) 秫酒는 釀酒에 대응하는 것으로 여과하여 걸러낸 술지게미가 가라앉은 후에 그 액을 취한 白酒로 ‘淸酒’이다.

酒星이 술을 만들었다는 전설이 술의 기원으로 기록되기도 했다. 수많은 역사 기록들로 인해 周代 이전에 이미 술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史記·殷本紀》의 “酒池肉林(술로 연못을 이루고 고기로 숲을 이룬다.)”은 夏와 殷代에 이미 대량의 술을 제조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기록이다.

실증적 고고학 자료를 통해 술의 기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殷商시대 甲骨卜辭와 金文에 ‘酒’字가 있다. 술을 담았던 ‘壺(호)’, ‘缶(유)’, ‘尊(존)’, ‘罍(가)’, ‘爵(작)’ 등의 酒器物이 발굴되었으며 器物名인 文字가 甲骨卜辭와 金文에 기록되어 있다. 殷商시대 이미 酒器의 쓰임과 기물의 명칭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이전에 술이 제조되었고 飲酒文化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山東 大汶口 유적지에서는 다량의 酒器가 발굴되었다. 商代 墓중 대표적인 婦好墓에서 발굴된 靑銅器物을 살펴보면 역시 다량의 酒器가 출토되었다. 婦好墓에서 출토된 청동기물은 모두 468점이 있는데 그중 禮器가 210점이 있다. 이 210점의 禮器 중 酒器가 155점이다. 이는 전체 예기 총수의 73.8%를 차지한다.⁶⁾ 1969-1977년 안양 은허에서 발굴된 中小墓 939기중에서 陶容器가 발굴된 墓가 719기이며, 酒器가 발굴된 묘는 508기로 전체의 54%이다.⁷⁾

河南 偃師 二里頭 유적지와 山西 夏縣 東下馮 유적지에서 다량의 입이 넓은 尊(大口尊)이 출토된 것에 근거해 夏代에는 이미 대량의 술 생산이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⁸⁾ 商代 釀造場은 도읍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매우 많았는데 이것은 각지의 商代 유적지에서 대부분 출토되는 많은 수량의 酒器로 추정해 볼 수 있다.

河北 藁城 臺西 商代 中期 유적지에서도 貴族部落의 가장 북쪽에 위치한 대형 양조장이 발견 되었다. 양조장 안에는 46개의 陶器가 있었으며 그 안에서 8.5kg의 효모를 발견하였다. 그밖에 尊, 壺, 罍, 豆 등의 기물이 발굴되었다. 鄭州 二里崗에서 출토된 입이 넓은 尊안에 침전물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술을 제조하는데 쓰이는 누룩곰팡이였다.⁹⁾

6) 盧連成, 《靑銅文化的寶庫》, (成都: 四川教育出版社, 1966), 144쪽.

7)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安陽工作隊, 〈1969-1977年殷墟西歐墓發掘報告〉, 《考古學》, 1979, 第1期를 참조 하였다.

8)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編著, 《二里頭陶器集粹》,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5)를 참조하였다.

1994년 山東滕州市 前掌大 商代 고분에서 출토된 기물 중 밀봉된 청동 卣가 발굴되었다. 중국사회과학원의 고고학 연구소는 밀봉된 청동기에서 나온 투명한 액체가 술인 것을 증명하였다.¹⁰⁾ 河南 羅山 天湖 商息族墓地에서도 밀봉이 양호한 卣가 출토되었는데 술이 비교적 많이 담겨져 있었고 과일향이 풍겨 香酒로 추정하였다.¹¹⁾ 安陽 郭家庄 M1 유적지에서 발견된 銅卣에 백색의 술이 발견되기도 했다.¹²⁾ 또, 1977년 河北 平山懸 中山國 유적에서 두 개의 銅壺가 발굴되었는데 그 속에서 발견된 검푸른 빛깔의 액체가 화학분석을 통해 술인 것이 증명되었다.

이렇게 발굴된 술과 여러 가지 유물을 통해 商代의 양조업은 대규모적이었으며 음주 문화는 보편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商代 酒文化는 商代 이전에 이미 술이 제조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근거이다. 고대인들은 자연 발생적으로 탄생한 천연 발효주를 발견한 이후에 이를 모방하여 술을 제조하였고 이 과정은 상당히 오랜 기간을 걸쳐 변화 발전되었다. 釀酒의 기원은 발굴된 유물과 문헌의 기록으로 보아 商代 이전인 夏王朝로 보는 것이 보편적이라 할 수 있다.¹³⁾

2) 用途

商代에는 술이 비교적 많이 생산되었지만 귀한 물품이라 주로 祭祀에 쓰이거나 하사품으로 내려졌고 方國에서 진공품으로 바쳐졌다. 이후 귀족제후의 연회에서 사용되었으며 일반백성들도 제사 시에는 술을 마실 수 있었다.¹⁴⁾ 이러한 용도 이외에도 藥用으로서의 기능도 가지고 있었다.

9) 唐雲明, 〈藁城臺西商代遺址〉, 《河北學刊》, (石家莊:河北省社會科學院1984), 175-176쪽.

10)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滕州前掌大墓地(上下)》, (北京:文物出版社, 2005)를 참조하였다.

11) 歐潭生, 〈羅山天湖商周墓地〉, 《考古學報》, 1986를 참조하였다.

12) 김선희, 〈甲骨文字에 나타난 商代 食文化 研究〉, (서울:숙명여대석사논문, 2002), 75쪽.

13) 夏商周斷代工程專家組, 《夏商周斷代工程1996-2000年階段成果報告(簡本)》, (北京:世界圖書出版社北京公司, 2000), 76-80쪽.

14) 김선희, 〈甲骨文字에 나타난 商代 食文化 研究〉, (서울:숙명여대석사논문, 2002), 74쪽.

(1) 祭需品

고대 중국에서 祭祀는 매우 중요하고 큰일이었다. 제사는 인간과 神이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기 위한 행위로 신에게 복을 빌거나 신의 힘에 의지하여 재앙을 극복하고 福을 구하고자하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 그러므로 가장 귀하고 훌륭한 祭需를 신에게 올려 경건한 마음을 표시했다. 처음에 술은 제사를 지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祭物이었다.

갑골문에는 수많은 종류의 祭祀 기록이 있다.¹⁵⁾ 제사에는 양, 소, 돼지 등의 육류가 제수품의 주를 이루었지만 술 역시 반드시 올려야하는 중요한 祭需品이었다. 卜辭중 酒祭의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 [1] 癸未 貞 : 甲申酒出入日, 歲三牛. 茲用 (屯南 890)
(癸未일에 묻는다. 甲申일에 태양의 입출에 드리는 祭禮에 술과 세 마리 소를 祭需品으로 삼았다.)
- [2] 癸亥卜, 酒上甲 (合 1192)
(癸亥일에 점을 쳤다. 上甲에게 술을 드렸다.)
- [3] 癸酉卜, 貞 : 弓弓鬯百 牛百 (前編 5·8·4)
(癸酉일에 점을 치고 묻는다. 향주 1백 병과 소 1백 마리를 올렸다.)
- [4] 貞 : 翌丁未勿酒歲. 二 (合 4059)
(묻는다. 다음날 丁未일에 酒祭와 歲祭를 지내지 말까요? 두 번 물었다.)
- [5] 癸巳卜, 貞 : 燎十勿牛又五鬯 (合 15616)
(癸巳일에 점을 치고 묻는다. 燎祭를 지내는데 색깔 있는 소 10 마리와 또 향주를 5병을 드릴까요?)

[1] 茲는 絲를 두 개 합친 모양이다. 茲의 초문이며 此와 같다. 用은 고대 생활에서 유용하게 쓰던 손잡이가 있는 나무통이다. 점차 ‘쓰다’, ‘사용하다’로 인신되었다.¹⁶⁾ [2] 점을 치고 上甲에게 술을 올려 제사를 지냈다. [3] 鬯은 술을 세는

15) 양동숙, 《甲骨文解讀》, (서울: 書藝文人畫, 2007), 311쪽.

제사의 명칭은 제수품의 처리, 또는 제사의 진행방법과 깊은 관계가 있다. 소를 물에 빠뜨리는 모양이 沈자인데 갑골문에 이런 방법으로 드리는 제사명도 沈이다. 목을 잘라드리는 제사는 伐이고, 땅에 매장하는 제사는 埋, 춤을 추며 드리는 舞, 북소리를내며 드리는 彭·尪, 술을 올려 드리는 제사는 酒·酉·𩚑 이다.

量詞로도 쓰이고 보통 香酒를 뜻한다.¹⁷⁾ [4] 鬯은 鬯과 立의 합체자로 鬯과 같다. 갑골문에서는 '다음날', '내일' 등으로 쓰였다.¹⁸⁾ [5] 燎는 제물을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명이고 勿은 物의 본자로 勿牛는 색깔 있는 얼룩소이다.¹⁹⁾

(2) 進貢用

商代 지방 귀족제후들이 만든 술은 자신의 집에서 마시는 것 외에 進貢用으로 商王에게 바치었다. 甲骨文에 그 예가 보인다.

[6] 貞：氏(以)卣。(東京 286)

(묻는다. 술을 바칠까요?)

[7] 于翌日癸亥, 其新鬯, 王受又又 (합 30975)

(다음날 癸亥일에 새 술을 왕이 받았다.)

[6] 卣는 술이고 氏(以)는 진공한다는 뜻이다. [7] 새로 만든 香酒를 왕이 받았다는 내용이 보인다. 又是 손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받다'라는 뜻으로 쓰였다. 靑銅 卣는 鬯酒를 담아 저장하는 전용 용기로 사용되었으며 또한 鬯酒를 세는 양사이다. 《甲骨文合集》에는 鬯一卣 (합 15795)라는 기록이 보이는데 一卣의 용량은 약 5Kg 정도이다.

(3) 治療用

商代에 술은 祭需와 進上品으로 사용되었으며 연회에서 흥을 돋우는 기호식품의 역할을 했으며 약용으로서의 기능도 가지고 있었다. 商代 사람들은 제사에 술을 올림으로 神과 통하는 靈性を 높인다고 여겼고 술은 병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다고 믿었다.²⁰⁾ 古代 巫의 가장 실용적인 기능중 하나는 질병의 치료였으며 巫는 醫를 겸비하고 있다. 따라서 갑골문에는 '巫'만 있을 뿐 '醫' 字는 발견되지 않았

16) 양동숙, 《甲骨文解讀》, (서울: 書藝文人畫, 2007), 197쪽.

17) 양동숙, 《甲骨文解讀》, 앞의 책, 325쪽.

18) 양동숙, 《甲骨文解讀》, 앞의 책, 211쪽.

19) 양동숙, 《甲骨文解讀》, 앞의 책, 325쪽.

20) 陳詔, 《中國饌食文化》,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1), 10쪽.

다.21) 후에 문헌에는 다음과 같이 술이 醫療用으로 쓰였음을 기록하였다.

《說文解字》：“醫之性然，得酒而使，酒，所以治病也。（醫의 성질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술을 먹어 다스리게 하니，술은 병을 치료하는 바이다.）”

《漢書·食貨志》：“酒，百藥之長。（술은 백약의 으뜸이다.）”

《禮記·曲禮上》：“有疾則飲酒食肉。（병이 있으면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는다.）”

《說文解字注》：“醫本酒名也。（醫는 본래 酒의 이름이다.）”

3. 殷商代의 飲酒文化

殷商代의 제사에 관련된 卜辭를 살펴보면 많은 祭需品을 올렸지만 그중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술이었다. 당시 술 수요량은 매우 많았으며 발전된 농업생산으로 술을 제조할 수 있는 곡식도 충분히 뒷받침되었다. 商代의 농작물은 禾(화), 黍(서), 麥(맥), 稻(도), 稷(직), 高粱(고량)등의 곡물이 주종을 이루었다. 갑골문에는 ‘受黍年’, ‘受稷年’, ‘受稻年’처럼 이들 곡물의 수확을 묻는 卜辭가 많다. 이들 곡식은 양식으로 삼는 곡물인 동시에 모두 술의 원료가 되는 것으로 商代人들이 특히 술을 좋아 했던 특성과 연관 지을 수 있다.22)

은상대의 술 문화는 매우 발달되었는데 당시의 누룩이 실제로 발견되기도 했으며 분석 결과 기장(黍)으로 빚었음을 알 수 있었다. 처음에 술은 귀한 곡식으로 만들어 조상이나 그 밖의 신들에게 드리는 최고의 祭需였다. 1937년에 중국의 고고학자 吳其昌은 재미있는 관점을 제기한 적이 있다. “우리들의 선조가 벼와 기장을 심은 이유는 밥을 짓기 위함이 아니라 술을 빚기 위함이었다. …… 현재 우리가

21) 양동숙, 〈甲骨文中으로 본 商代의 疾病〉, 《中語中文學》 第24輯, 1996, 29쪽.

醫는 医, 攴, 酉자가 합쳐진 회의자이다. 医는 상자 속에 화살같은 뾰족한 醫術도구가 있는 모양이고 攴는 손에 도구를 잡고 있는 모양이다. 酉는 술항아리 모양인데 술을 뜻하며 마취, 소독, 마음을 진정시키고 약효를 빠르게 하는 효능을 의미한다. 즉, 손에 의료기구를 들고 환부를 치료하는 외과 시술의 형상을 나타냈으며 풀은 巫와 같게 하여 醫가 되었다.

22) 양동숙, 《甲骨文解讀》, (서울: 書藝文人畫, 2007), 527쪽.

먹고 있는 밥은 술을 마시는 것에서 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처럼 사람들이 처음에 곡식을 심은 목적이 술을 제조하기 위함이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다.²³⁾ 은상대에 술은 중요한 飲料였으며 당시 사람들의 음주문화는 여러 문헌기록에서 나타난다.

《尚書·大傳》：“夏人飲，醉者持不醉者，不醉者持醉者。（夏人들은 술을 마심에 취한 이는 취하지 않은 이를 지켰고, 취하지 않은 이는 취한 이를 지켰다.)”

《戰國策·魏策》：“禹飲而甘之，遂疏儀狄，絕旨酒曰：後世必有，以酒亡其國者。（禹 임금이 맛을 보니 달았다. 도리어 의적을 멀리 하고 술을 끊으면서 말하기를 후세에 반드시 이 술 때문에 나라를 망치는 일이 있을 것이다.)”

《尚書·酒誥》：“商紂王飲酒七天漆夜不歇，爲糟丘酒池，池可以運舟，山樹枝上掛滿肉片，爲肉林。（商 紂王은 칠일 밤낮을 쉬지 않고 술을 마셨는데 술 지게미 언덕과 술 연못을 이루며 연못에는 배가 다닐 수 있었다. 산의 나뭇가지 마다 고기조각을 가득 걸어 고기 숲을 이루었다.)

아래에서는 갑골문자의 분석을 통해 殷商代의 음주문화를 살펴보도록 한다. 중국 5천년 역사상 은상대는 가장 대표적인 飲酒時代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유명하다. 은상대 사람들의 酒에 대한 관심과 그로 인해 생성된 문화는 갑골문자에서도 잘 나타나있다. 甲骨文字에 나타난 술과 관련된 文字를 살펴보면 殷商代 飲酒文化가 얼마나 盛行했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1) 酒²⁴⁾

				
乙 2121	甲 2121	合 28231	說文解字	楷書

23) 서진영, <중국문화에 대한 이해 (知道點中國文化)>, (대구: 계명대학교 통번역대학원석사 논문, 2009), 82쪽.


24) 《說文解字》에서 “酒，就也。所以就人性之善惡。從水從酉，酉示聲。”라고 하였다.

‘酒’는 술 단지에서 술이 흘러내리는 모습을 표현한 글자이다. 고대의 酒는 酉자로 이루기 때문에 뜻이 같아 《說文解字》에서는 ‘就也’라고 했으며 두 자가 통용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무형의 형태인 술을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술을 담았던 단지 모양(酉)에 물수(彡)를 더해 ‘술’을 나타낸 것이다. 本義는 술이다. 借用되어 人名, 地名, 祭名 등으로 쓰인 卜辭도 보인다.

- [8] 本義: 貞, 來辛酉酒王亥 (粹 76)
(묻는다. 辛酉일에 와서 王亥에게 술을 드릴까요?)
- [9] 人名: 甲子卜, 賓, 貞: 酒在疾不從王…… (甲 2121)
(甲子일에 점치고. 賓이 묻는다. 酒가 병이 나서 왕을 따르지 못한다.)
- [10] 地名: 在酒孟田受年 (京都 1932)
(酒땅 孟田에서 풍성한 수확을 얻을까요?)
- [11] 祭名: 癸亥卜, 貞: 翊辛未, 王其酒河不雨 (掇 2·195)
(癸亥일에 점치고 묻는다. 다음날 辛未일에 왕이 酒祭를 지내면 강에 비가 안 올까요?)

(2) 酉²⁵⁾

				
甲 2490	京 3232	京 749	說文解字	楷書

본래 ‘酉’는 갑골문자에서  등의 형태로 술을 나타내기도 했다. 술이나 물을 담는 항아리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說文解字》에서도 “酉, 就也. 象古文酉之形也.” 라고 하였다. 本義는 술그릇이고 차용되어 干支로 사용되었다.

- [12] … 辰卜…… 翊丁巳先用三牢禘于酉用 (一佚 199)
(… 辰일에 점을 치다. …… 다음날 丁巳일에 소 세마리와 강족 노

25) 《說文解字》에서 “酉, 就也. 八月, 黍成, 可爲酎酒. 象古文酉之形也. (酉는 나간다는 뜻이다. 8월에 기장이 익으면 술을 빚을 수 있다. 酉의 고문 모양을 형상화 하였다.)”라고 하였다.

예와 술을 제물삼아 올릴까요?)

- [13] 地支：癸酉貞，于上甲(后上 26·15)
(癸酉일에 묻는다. 上甲에게)

(3) 福²⁶⁾

				
佚 755	南明124	前 428	說文解字	楷書

‘福’은 술독(卣)을 두 손으로 들고 조상 제단(示)앞에 바치는 모습을 형상화한 글자이다. 《說文解字》에서 “祐也. 從示卣聲.” 라고 하여 갑골문자의 차이를 나타낸다. 귀한 술을 받은 조상이 후손에게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해준다고 믿었던 데서 ‘福’이란 뜻이 되었다. 아래 卜辭와 같이 祭祀名으로도 사용되었다.

- [14] 貞：福于父甲(乙 7438)
(묻는다. 아버지 甲에게 福 제사를 지낼까요?)

- [15] 貞：子漁疾目, 福告于父乙(佚 524)
(묻는다. 子魚가²⁷⁾ 눈병이 났는데 아버지 乙에게 福告 제사를 지낼까요?)

(4) 飲²⁸⁾

				
甲 205	后下7·13	庫1002	說文解字	楷書






26) 《說文解字》에서 “祐也. 從示卣聲, 方六切” 라고 하였다.
27) 양동숙, 《甲骨文解讀》, (서울: 書藝文人畫, 2007), 877쪽.
子魚는 武丁왕의 아들 이름이다.
28) 《說文解字》에서 “飲也. 從欠卣聲. 凡飲之屬皆從飲. (마신다는 뜻이다. 欠으로 구성되어 있고 卣이 받음된다. 飲부에 속하는 자는 모두 飲의 의미이다.)”라고 하였다.

‘飲’의 오른쪽 ‘欠’은 사람을 나타내고 왼쪽 ‘食’은 입과 혀, 술독(酉)의 모습을 형상화한 글자이다. 즉, 사람이 혀를 내밀어 술독에 넣고 있는 모습으로 ‘마시다’라는 뜻이 생겨났다. 《說文》에서도 “飲也.(마시다.)”라고 하였다. 예전에는 ‘飲’은 술을 마시는 것에 제한되어 사용한 글자이다.²⁹⁾

[16] 貞：王飲有 (綴合 299)
(묻는다. 왕이 마실까요?)

[17] 飲于河 (菁 4)
(강에서 마실까요?)

(5) 醜³⁰⁾

				
續4.9.2	佚 973	金文	說文解字	楷書

‘醜’는 酉에 가면 쓴 사람을 본뜬 鬼를 더한 자이다. 가면은 특별한 종교 의식 때 사용하므로 醜는 종교의식이 끝난 후 벌어지는 잔치의 장면을 묘사 것이다. 그런데 잔치에 참가한 사람들이 한잔, 두잔 마시다 취하게 되고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며 ‘보기에 좋지 않다’는 뜻이다.³¹⁾ 《說文解字》에서 “可惡也.”라고 하였다. 商代 귀족들은 술로 망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술을 무척 좋아했다. 醜는 殷商代의 풍속을 담고 있는 字라고 볼 수 있다.

[18] 貞：若茲不雨惟... 有醜于... (合 12878)
(묻는다. 만약에 이번에 비가 오지 않으면... 좋지 않은 일이...)

[19] 龍有醜..... (合 4654)
(병세의 호전됨이³²⁾ 보이지 않는다....)

29) 馬如森, 《殷墟甲骨文實用字典》, (上海: 上海大學出版社, 2008), 206쪽.



30) 《說文解字》에서 “可惡也. 從鬼酉聲. 昌九切.”라고 하였다.

31) 馬如森, 《殷墟甲骨文實用字典》, (上海: 上海大學出版社, 2008), 364쪽.

(6) 配³³⁾

				
합31841	乙6718	金 553	說文解字	楷書

‘配’는 酉에 무릎을 꿇고 앉은 사람을 나타낸 己를 합친 글자이다. 本義는 ‘술을 탐하다’이다.³⁴⁾ 후에 妃의 의미로 쓰여 배우자라는 뜻이 되었다. 고대 결혼식의 한 장면을 묘사한 것처럼 보인다. 전통 혼례에서 술을 나누어 마시는 의식을 생각하면 배필이라는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³⁵⁾ 借用되어 地名으로 쓰였다.

- [20] 庚寅卜, 王余  于其配 (金 553)
 (庚寅일에 점친다. 왕이 配땅에 가옥을³⁶⁾ 새울까요?)
 [21] 貞 : 帝弗  配 (乙 6718)
 (묻는다. 配에서 제사를³⁷⁾ 지내지 말까요?)

그 밖에 갑골문에는 보이지 않지만 술과 관련 있는 字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醫’³⁸⁾는 상자 속에 화살촉이 들어 있는 医와 손으로 수술 기구를 잡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扌, 술독을 형상화한 酉로 구성되어있다. 손에 잡은 도구는 외과용 수술 기구이고 상자 속에 든 화살촉은 몸에서 뽑아 낸 것으로 보인다. 의미를 붙이면 상처를 고치는 것이니 여기서 ‘의사, 고치다’라는 뜻이 나온 것이다. 술은 마취

32) 양동숙, 《甲骨文解讀》, (서울: 書藝文人畫, 2007), 855쪽.
 신의 은총을 받아 병세가 호전됨을 뜻한다.
 33) 《說文解字》에서 “酒色也. 從酉己聲. 滂佩切.”라고 하였다.
 34) 馬如森, 《殷墟甲骨文實用字典》, (上海: 上海大學出版社, 2008), 332쪽.
 35) 段玉裁, 《說文解字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1).
 36) 양동숙, 《甲骨文解讀》, (서울: 書藝文人畫, 2007), 437쪽.
 余는 기둥으로 지붕을 바치고 있는 가옥의 모양으로 원시 시대의 가옥이다.
 37) 양동숙, 《甲骨文解讀》, (서울: 書藝文人畫, 2007), 239쪽.
 帝는 帝의 초문이다. 제사명으로 쓰였다.
 38) 《說文解字》, “治病工也. 毆, 惡姿也; 醫之性然. 得酒而使. 從酉.”

와 소독, 약효를 빠르게 하거나 마음을 안정 시켜주는 역할을 하여 상처의 수술이나 치료에 필수적인 것이었다.

‘酌’³⁹⁾은 酉에 勺을 더한 자이다.勺은 국자를 勺로 국자안의 내용물을 丿로 표시한 글자이다. 국자로 술 단지의 술을 퍼서 따라주는 형상을 나타냈다. 그대로 따르다라는 뜻이다.《說文解字》에서는 “盛酒行觴也. 從酉勺聲. 之若切.”라고 하였다. ‘醉’⁴⁰⁾는 酉와 卒을 합친 형태이다. 卒은 가죽 조각을 이어 만든 갑옷을 본뜬 글자이다. 귀족들이 입던 것보다 질이 낮았기 때문에 ‘군사’란 뜻을 갖게 되었다. 酉와 합쳐져 졸병이 술을 마시는 형상이다. ‘술을 마시다’가 아니라 ‘술에 취하다’로 쓰였다.⁴¹⁾《說文解字》에서도 “卒也. 卒其度量, 不至於亂也.”라고 하였다.

4. 殷商代의 酒器

殷墟에서 발굴된 彝器類는 적지 않다. 그중에 대량의 酒器가 발굴 되었는데 주기의 종류는 술을 담는 盛酒器, 술을 마시는 飲酒器, 술을 데우거나 섞는 溫酒器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보통 飲酒器중 爵, 斝, 角은 溫酒器의 역할도 같이 했으나 본고에서는 이 세 器物은 술을 마시는 용도로 분류해 설명하였다.

1) 盛酒器

(1) 壺⁴²⁾

				
前 555	乙2924	屯南 523	說文解字	楷書

39) 段玉裁, 《說文解字注》에서 “盛酒於頃. 以飲人 曰行觴. 投壺云 命酌曰 請行觴.”라고 하였다.

40) 《說文解字》, “卒也. 卒其度量, 不至於亂也.”

41) 정춘수, 《한자오디세이》, (서울: 부키, 2003), 276쪽.

42) 《說文解字》에서 “壺, 崑吾鬯器也. 象形. 從大象其蓋也.”라고 설명하였다.

'壺'는 최초의 몇몇 왕조시대에 술을 데우는데 쓰이는 호리병을 지칭하기도 했으며 술을 담는 그릇인 동시에 물을 담는 그릇(盛水器)이다.⁴³⁾ 갑골문에서 자주 출현하는 '壺'는 키가 크고 몸체가 무거우며 아래쪽에 튼튼한 받침대가 있는 호리병을 지칭했다. 어떤 것은 목 부분이 아름답고 어떤 것은 옮기기 쉽도록 옆에 작은 손잡이가 달려있고 뚜껑이 있다. 《毛傳》에 “壺, 瓠也. (壺는 표주박형이다.)”라 하였다. 本義는 ‘주전자, 항아리, 호리병’이라는 뜻으로 뚜껑이 갖추어진 병모양의 항아리이다.⁴⁴⁾ 借用되어 人名, 方國名으로도 쓰였다.






[22] 人名 : 壺子曰喪 (庫 1506)

(壺의 아들이 喪땅에 말했다.)

[23] 方國名 : 丁亥, 壺示屯帚又 (燕 85白)

(丁亥일에 壺땅에서 帚又를 보았다.)

(2) 卣⁴⁵⁾

				
佚801	乙6344	乙6901	金文	楷書

갑골문의 '卣' 字는 둥근 조롱박 모양으로 술이 담긴 酒器의 형상이다. '卣'는 술 호리병이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보통 물을 길어 올릴 때 사용하던 호리병 모양을 본뜬 것이다. 입구가 작고 배가 볼록한 그릇의 총칭으로 사용되었으며 윗부분에 손잡이가 있고 술을 담아 두는데 용이한 그릇으로 '壺'와는 구별되었다. 殷代와 西周

43) 《公羊傳·昭公二十五年》“國子執壺漿(국자는 물통을 들었다.)”《詩經》“清酒百壺.(맑은 술 백병)”

44) 李孝定編,《甲骨文字集釋》,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第10卷,第3221項,2004에서 설명한 내용을 馬如森,《殷墟甲骨文實用字典》,(上海:上海大學出版社,2008),236쪽에서 재인용.

45) 《說文解字》에는 '卣'字가 없다.《爾雅·釋器》에“卣,中尊也.”라고 하였다. 馬如森,《殷墟甲骨文實用字典》,(上海:上海大學出版社,2008),357쪽.

시대의 기물이 많이 발굴되어 그 시대에 卣가 성행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卣’字는 다른 뜻으로 파생되거나 의미 변화 없이 本義를 그대로 유지하는 字이다.⁴⁶⁾

갑골문에서는 酒器로 사용하였고 人名, 술을 세는 量詞, 그리고 ‘끓임없다’ 등의 의미로 사용하였다.

- [24] 酒器 : 鬯六卣, 亡尤 (合 35355)
(香酒 6병 없어졌다.)
- [25] 人名 : 貞, 弱卣 其悔 (合 28822)
(묻는다. 弱卣가 뉘우치고 있을까요?)
- [26] 量詞 : 鬯三卣… (合 1069), 百日…卣四日…丁己正…(合 11721)
(향주 3병… 백일에… 4병… 丁己일에…)
- [27] 끓임없다 : 丁酉卜, 貞 不卣雨 (合 33292)
(丁酉일에 점을 치고 묻는다. 끓임없이 비가 올까요?)

(3) 尊⁴⁷⁾

				
前 545	晉 263	前544	說文解字	楷書

‘尊’은 商代 대표적인 술을 담는 그릇으로 일종의 술통이다. 그 형태는 입이 넓고 배가 불룩하며 둥근 받침다리가 있다. 일반적으로 尊의 외형은 동물 문양으로 장식하거나 동물의 형태로 제작하였다. 商 초기 靑銅 尊은 입이 넓고 목이 잘록하며 배가 불룩하고 받침다리가 높고 둥글다. 商末에서 西周로 넘어가면서 尊은 觚形이 많고, 원통 형태로 입·배·다리의 지름이 축소되어 날씬한 모양을 하고 있다. ‘尊’字는 罇에 寸을 더했다. 罇는 酉(술통)속에 술이 오래되어서 좋은 향기를 풍기고 있음을 八로 표현한 글자이다. 즉, 罇은 술을 뜻하고 있다. 寸은 양쪽으로

46) 단음절의 단어로 古代酒器라는 한 가지 뜻만 있다.
47) 《說文解字》에서 “尊, 酒器也. 從酉, 以奉之. 周禮有六尊: 犧尊, 象尊, 著尊, 壺尊, 太尊, 山尊. 以待祭祀賓客之禮”라고 하였으며 여기서 말하는 ‘六尊’은 酒器를 가리킨다.

별린 두 손을 위로 받드는 형태이다. 종합해보면 '尊'은 술 단지에 묵은 술을 담아 손으로 바치고 있는 형상을 나타낸 것으로 '술을 담는 그릇' 또는 '술을 받들어 올리다.'라는 뜻이 있고引申되어 '존중'의 의미가 파생되었다. 아울러 古代에 두 손으로 술을 받들어 조상에게 제사를 지냈음을 표시한다. 갑골문에서는 祭名, 地名으로 借用되기도 했다.

- [28] 酒器名：甲寅貞：來丁巳尊釜于父丁(后上 27·10)
 (甲寅일에 묻는다. 오는 丁巳일에 아버지 丁에게 尊釜를 올릴까요?)
- [29] 祭名：丙午卜，貞，畢尊歲羌三十于宗用.六月(合 320)
 (丙午일에 점치고 묻는다. 畢이 尊제사에 강족 노예 30인을 사당에 드리려는데 쓰일 수 있을까요? 6월에)
- [30] 地名：癸巳卜，鼓弓弓震其尊(屯南 236)
 (癸巳일에 점친다. 尊땅에서 鼓제사를⁴⁸⁾ 지내면 많이 놀랄까요?)

(4) 觥, 觶 49)

				
后2113	佚336	粹 533	說文解字	楷書

'觥'은 商代의 술을 담는 그릇이며 술을 마시는 그릇으로도 썼다. 《小雅》와 《周頌》에 모두 "兕觥其觶(코뿔소의 뿔잔)"라 한 것을 보면 코뿔소 뿔을 잔으로 직접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후에 코뿔소 뿔모양을 본떠 觥을 銅으로 제작하였다. 觥의 용량이 크므로 주량이 많은 사람이 觥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觥의



48) 양동숙, 《甲骨文解讀》, (서울: 書藝文人畫, 2007), 933쪽.
 깃털로 장식한 북을 받침대 위에 올려 놓고 채를 잡고 치는 모양, 또는 북을 치며 드리는 제사명을 말한다.

49) 《說文解字》에서 "觶, 兕牛角可以飲者也. 從角, 觥聲. (觶은 코뿔소의 뿔로 마시는 도구이다. 角을 따르고 黃은 소리이다.)"라고 하였다.

기본 형태는 타원형 혹은 사각형이며 앞은 넓고 뒤에는 손잡이가 있는데 손잡이 부분은 짐승머리형(獸首形)이 많다. 네모난 觥과 다리가 네 개인 觥은 대부분 商代의 전형적인 기물에 속한다. '觥'字는 갑골문에서 보이지 않으나 觥이 있다. 갑골문의 '觥'字는 소뿔 잔의 형태로 觥의 초문이다.⁵⁰⁾ 卜辭에서는 祭器로도 사용되었다.

- [31] 癸酉貞, 弓弓... 王亥觥 燎 (后篇 21·13)
(癸酉일에 묻는다. 강하다... 왕亥가 觥로 燎제사를 지낼까요?)
- [32] 貞, 婦好止觥 (續存 4·30·5)
(묻는다. 왕비婦好가 觥를 가지고 가도 될까요?)

(5) 罍⁵¹⁾

			
甲 2812	金文	說文解字	楷書






'罍'는 商代에 술을 담는 대형 그릇이며 술을 빚는 그릇(釀酒器)이다. '罍'의 형태는 대체로 圓形과 方形 두 종류가 있다. 그 특징은 입이 높고 어깨가 넓으며 받침대가 있거나 목이 짧고 각지며 받침대가 없다. 罍는 商代에 유행하다가 戰國時期에 쇠퇴하였다.

갑골문자를 보면 현재에 배가 불룩한 물 항아리와 흡사해서 水器로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현재 갑골문에서 발견한 '罍'字는 아래의 하나뿐이다.⁵²⁾

- [33] 今日... 罍... (合 31319)
(오늘... 큰 술그릇 罍...)

50) 徐中舒, 《甲骨文字典》, (成都: 四川辭書出版社, 2006), 482쪽.
51) 段玉裁, 《說文解字注》에서 "罍或從缶,"라고 하였다.
52) 馬如森, 《殷墟甲骨文實用字典》, (上海: 上海大學出版社, 2008), 353쪽.

(6) 方彝⁵³⁾

				
甲 3932	合14294	甲 3588	說文解字	楷書

‘彝’는 술을 담는 그릇으로 長方形, 正方形으로 뚜껑이 있고 귀가 있는 酒器이다.⁵⁴⁾ 기물의 몸이 비교적 높고 형태가 卣와 비슷하다. 발굴된 方彝는 대부분 商, 周 시기의 것이 며 春秋戰國시기에 점차 쇠퇴하였다. 本義는 두 손으로 닦을 잡아 받들어 올리는 형상으로 즉, 祭物을 받들고 있는 것이다. 이후에 祭器名, 神名, 祭名으로 借用했다.⁵⁵⁾ 殷商代때 새나 돼지를 조상에게 올리는 ‘彝’라는 제사가 있었다. ‘彝’는 다리가 뒤로 묶이고 목이 잘린 犧牲을 두 손으로 받들고 있는 모습을 나타냈다. 목이 잘린 희생물이 卣, 다리를 묶었던 줄이 糸, 두 손이 卩으로 표현되었고 이후에 米가 덧붙여졌다. 후에 ‘彝’는 祭器를 총칭하는 이름으로 쓰이게 되었다.

- [34] 祭名 : 癸丑 ... 來,乙,王 ... 彝于祖乙 (佚 714)
 (癸丑날에 ... 왔다, 을, 왕이 ... 彝제사를 할아버지 乙에게)
 彝 在中丁宗,在三月 (讀 1·12·6)
 (彝제사를 中丁⁵⁶⁾사당에 드릴까요? 3월에)
- [35] 祭器名 : 王彝 (前 5·1·3)
 (왕의 祭器 彝)
- [36] 神名 : 貞, 帝于西方曰彝風 (綴合 261)
 (묻는다. 西方의 바람신 彝에게 제사를 지낼까요?)
 西方曰卣 風曰彝 (掇 2·158)
 (서방에서 말하길 ... 바람의 신)

53) 《說文解字》는 “彝,宗廟常器也. 從系, 系, 彝也……此與爵相似. (종묘에서 사용하는 器이다. 系를 따르고 系는 彝이다. 이것은 爵과 서로 비슷하다.”라고 하였다. 注: “皆盛注尊,彝其總名也. (모두 술을 담는 酒器이다. 彝는 총 명칭이다.)”라고 하였다.
 54) 《爾雅·釋器》에서 “彝, 卣, 鬯, 器也.(彝, 卣, 鬯는 그릇이다.)” 라고 하였다.
 55) 馬如森, 《殷墟甲骨文實用字典》, (上海: 上海大學出版社, 2008), 297쪽.
 56) 商代 제10대 왕이다.

(7) 甗⁵⁷⁾

	
說文解字	楷書

‘甗’는 商代 술을 담는 그릇이다. 발굴된 甗는 대부분 商周代의 것에 속하며 戰國時代 이후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甗의 형태는 罍나 尊과 비슷하다. 대부분 몸체가 넓고 등글며 등근 받침다리가 있고 다리위에 구멍이 있다. 甗와 罍의 차이 점을 형태로 보면 甗는 비교적 높이가 낮고 작으며 罍는 크기가 크고 높은데 罍에는 끈을 꿰는 코와 덮개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甗와 罍는 춘추전국시대에 와서 형태가 비슷해 졌다.⁵⁸⁾ 甗는 갑골문에서 보이지 않으나 1976년 河南 安陽 小屯에서 발굴된 유물로 殷商時代에 사용되던 酒器임을 알 수 있다.

2) 飲酒器

(1) 爵⁵⁹⁾

				
林 2613	鐵 2413	後下 78	說文解字	楷書

‘爵’은 殷商代에 술을 데우고 마시는 그릇이다. 현재의 다리 높은 술잔과 비슷하다. 입에는 술이 나오는 긴 물길이가 있고 버섯모양의 꼭지가 있으며 뒤에 참새 꼬리

57) 段玉裁, 《說文解字注》에서 “甗, 從瓦音聲. 蒲口切”라고 하였다. 《說文解字》에서는 “甗, 小缶也, 從瓦扁聲. (甗는 작은 항아리이다. 瓦를 따랐고 扁은 소리이다.)” 라고 하였다.
 58) 程長新·程瑞秀, 《古銅器鑑賞》, (北京: 北京工藝出版社, 2001), 81쪽.
 59) 《說文解字》는 “爵, 禮器也. 象爵之形. (참새 모양의 儀式用 酒器 모양으로 형상화하여 ‘술잔’의 뜻을 나타내었다.)” 라고 했다.

형태의 꼬리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원형 모양인 酒器이다. 아래에 날카롭고 높은 다리가 3개 있어 다리 사이에 불을 피워 술을 데운다.⁶⁰⁾

爵은 商代에 매우 보편적인 주기였으며 왕이 諸侯에게 封地를 하사할 때 함께 주는 일종의 상여물이기도 했다. 玉, 角, 金, 銀 등으로 만들었는데 등급에 따라 분류해 사용했기 때문에 작위의 높고 낮음을 정한 기원이 되었다. 참새 부리 모양을 한 잔, 또는 벼슬의 nom으로 신분의 계급을 나타내는 글자로 사용되고 있으며 '雀'과 통용한다. 《說文解字》는 “爵, 禮器也.(爵은 禮器이다.)”라고 하였다. 갑골문에서 '爵'字는 위에는 기둥모양이고 중간은 몸체, 아래는 다리의 형상이다. 本義는 酒器이다. 卜辭에서 祭名, 方國名으로 借用되었다.

- [37] 酒器名 : 庚戌卜, 王曰貞, 其爵用 (合 24506)
(庚戌일에 점친다. 왕이 묻는다. 爵을 사용할까요?)
- [38] 祭名 : 貞, 勿爵示 (京律 419)
(묻는다. 爵제사를 지내지 말까요?)
- [39] 方國名 : 癸未卜, 貞, 王旬舞 在七月王正 ... 商在爵. (合36537)
(癸未일에 점치고 묻는다. 왕이 10일 동안 춤추며 제사를 지낼까요? 7월에 ... 商이⁶¹⁾ 爵땅에서)

(2) 角⁶²⁾

				
林 2126	合 169	鐵 713	說文解字	楷書

'角'은 술을 데우는 그릇인 동시에 술을 마시는 그릇으로도 쓰였다. 角의 용량은

60) 김선희, <甲骨文字에 나타난 商代 食文化 研究>, (서울: 숙명여대석사논문, 2002), 144쪽.
 61) 양동숙, 《甲骨文字解讀》, (서울: 書藝文人畫, 2007), 225쪽.
 商왕조를 商이라 불렀던 것에 근거해 商자를 종묘사직의 건물로 보고 또 물통의 굽, 술통의 주둥, 현악기라는 풀이가 있으나 일치된 의견을 얻지 못하고 있다. 종족명, 인명, 방국명, 지명으로 쓰였다.
 62) 《說文解字》에서는 “獸角也. 象形, 角與刀、魚相似.”

비교적 큰 편이다.⁶³⁾ 본래 짐승의 뿔을 이용해서 마시는 그릇으로 사용했는데 후에 銅으로 만든 뿔 모양의 銅器을 ‘角’이라 불렀다. 角의 형태는 爵과 비슷하지만 입 모양이 짧고 기둥이 없다. 아래는 거의 반원형이며 세 개의 뾰족한 다리가 있고 뚜껑이 있는 것도 있다. 뾰족한 다리는 商代의 특징이며 周代로 갈수록 뾰족해진다.⁶⁴⁾

현재에 출토된 酒器 角은 대부분 상대에 제작된 것이다. 갑골문 ‘角’字는 獸角의 형상이다. 본의는 뿔이다. 그러나 卜辭에서 그 본의로 사용된 것은 보이지 않고 人名으로 사용된 것이 있다.

[40] 甲戌卜, 王余命角帚古朕事. (佚 15, 合 5495)
 (甲戌일에 점친다. 왕의 명령으로 角이古땅에서 왕의 일을 할까요?)

(3) 罍⁶⁵⁾

				
后下 710	掇 2·436	合 9544	說文解字	楷書

‘罍’는 술을 데우고, 마시는 그릇이다. 형태는 尊, 角과 비슷하나 용량은 尊보다 크다. 입에 둥글고 주둥이와 꼬리는 없으나 두개의 기둥이 있다. 밑은 평평하기도 하고 둥글거나 네모난 형태도 있다. 밑 모양에 따라 다리의 갯수가 달라지는데 둥근 罍에는 세 개, 네모난 罍는 네 개다. 商代에 주로 유행하였으며 西周 前期에 여전히 사용되었고 角에서 변화되어 나온 것으로 보인다.⁶⁶⁾ 《說文解字》에서는

63) 《禮記·禮器》에서 “宗廟之祭, 尊者舉觶, 卑者舉角.” (종묘제사에서 귀한 이는 觶를 들고 천한 이는 角을 들었다.)”, 《禮記·牧牲饋食禮》에서 “實二爵四觶一角一散. (爵 둘과 觶 네개, 角 하나와 散 하나는 같다.)”라고 하였다.
 64) 馬振亞·張振興, 《中國古代文化概說》, (吉林: 吉林大學出版社, 1988), 527쪽.
 65) 《說文解字》에서는 “玉爵也. 夏曰琖, 殷曰罍, 周曰爵. 從田從斗, 冂象形. 與爵同意. 或說罍受六斗.(玉爵이다. 夏에서는 琖, 殷에서는 罍, 周에서는 爵이라 칭했다.”라고 했다.

“玉爵也.(옥잔이다.)”라고 하였다. 卜辭에는 人名이나 地名으로 借用된 것이 보인다.

[41] 人名 : 罌來 ... 勿羊用 (乙 7925)

(罌가 온다 ... 양을 사용하지 말까요?)

[42] 地名 : 壬戌卜, 古, 貞, 乎口罌黍 (前 5·5·3)

(壬戌날 짐을 치고 古가 묻는다. 罌땅에 口에게 기장을 심으라고 명령할까요?)

(4) 觚⁶⁷⁾

觚	觚
說文解字	楷書

‘觚’는 商代에 출현한 음주기 중에 수량이 가장 많은 器物이다.⁶⁸⁾ 觚의 근원은 商 초기의 陶觚에서 나오는데, 이 시기 陶觚는 밑이 평평하고 다리가 둥글지 않고, 입은 작은 나팔모양이다. 商代 銅觚의 형체는 입과 둥근 다리가 모두 나팔모양이고 중간의 허리가 가늘다. 商末 觚는 아랫부분이 조금 좁아지며 배가 볼록하다. 이 때 또 허리가 특히 가는 觚가 출현하기도 했다. 觚器는 모두 商代와 西周的 것이다. 기물은 많은 양이 발굴되었으나 갑골문에는 字가 보이지 않는다.

(5) 觶⁶⁹⁾





觶	觶
說文解字	楷書

66) 馬振亞·張振興, 《中國古代文化概說》, (吉林: 吉林大學出版社, 1988), 527쪽.
 67) 《說文解字》에서는 “觶, 鄉飲酒之爵也. 一曰觶受三升者謂之觶. 從角瓜聲. 古乎切.(觶는 잔치에 술을 마시는 잔이다. 세되의 술잔을 받는 것이 觶라한다.)”라고 하였다.
 68) 李學勤, 《中國美術全集 工藝美術編青銅器》, (北京: 文物出版社, 1985), 22쪽.
 69) 《說文解字》에서는 “觶, 鄉飲酒角也.(치는 잔치에 술을 마시는 잔이다.)”라고 하였다.

‘觶’는 술을 마시는 그릇이다. 형태는 작은 병(瓶)과 같으며 간혹 뚜껑이 있는 기물도 발견되었다. 용량은 尊보다 작고, 尊의 몸통은 중간이 불룩하나 觶는 몸체의 아래 부분이 불룩하고 받침대가 있다. 觶는 商代 말기에 盛行하였으며 西周 후기에 사라졌다. 商代의 觶에는 원형과 타원형 두 종류가 있다. 갑골문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3) 溫酒器

(1) 盞⁷⁰⁾

			
甲骨文	金文	說文解字	楷書

‘盞’는 술을 데우고 술을 섞는 그릇(調酒器)이다. 술에 약한 사람을 위해 물과 술을 섞거나 물과 따뜻한 술을 섞는 器物로 사용되었다. 盞의 특징은 술을 따르는 기둥처럼 생긴 물길이 뚜껑에 부착되어 있고 손잡이는 아래 몸통에 있다. 몸체 아래에 주머니처럼 불룩한 다리가 3개 혹은 4개가 있어 술을 데우기 용이했다. 盞는 원래 신석기시대의 세 발 달린 도자기 술에서 시작하여 商 中期에 새로운 器形으로 발전되었다. 商周에서 성행하였고 戰國에서 東漢까지 이어졌다. 오늘날 사용하는 차 주전자(茶壺)는 銅盞를 뒤이은 것으로 볼 수 있다.

‘盞’字는 갑골문에서는 보이지 않으며 金文에서 禾와 皿으로 이루어진 모양이 보여진다. 禾는 麥과 稻를 대표하고 皿은 米酒 종류의 음식물을 담는데 쓰였다. 王國維는 《說盞》에서 盞는 물과 술을 섞는 그릇으로 술맛의 농담을 조절한다고 하였다.⁷¹⁾

70) 《說文解字》에서는 “調味也，從皿禾聲。(맛을 조절한다. 皿을 따르고 소리는 禾이다.)”라고 하였다.

71) 김선희, 〈甲骨文에 나타난 商代 食文化 研究〉, (서울: 숙명여대석사논문, 2002), 150쪽.

5. 結語

이상으로 甲骨文字의 자형 분석과 酒器를 통해 殷商代의 酒文化를 살펴보았다. 殷商代의 '酒' 文化는 문헌 기록과 고고학 증거를 통해 夏代로 부터 이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자연 발생으로 생긴 술을 모방하여 인위적으로 과실이나 곡식을 발효시켜 술을 생산했다. 다양한 酒器의 발굴로 殷商代는 술의 대량생산이 가능했으며 술의 원료가 되는 곡식이 풍족했음을 짐작 할 수 있다. 또한, 殷商代 술은 祭需品, 進貢品, 醫療用 등의 용도로 쓰이면서 귀족뿐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마실 수 있는 음료였다.

酒와 관련된 갑골문자를 살펴보면 本義뿐 아니라 祭名, 人名, 地名등 다양한 의미로 쓰였으며 卜辭를 통해 商代人들의 생활과 술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알 수 있다. 발굴된 다수의 酒器들은 그 명칭과 쓰임이 卜辭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다. '甗', '觚', '觶', '盃' 처럼 器物은 현존하나 器名이 갑골문에서 발견되지 않은 것도 있다.

'壺', '酉', '卣', '盞', '爵', '角', '罍'는 객관적인 실상을 직접적으로 반영해 器物과 字形이 일치하며 '酒', '福', '飲', '醜', '配', '尊', '彝' 처럼 실존 형상에 주관적인 형상을 반영한 字形도 있다. 모두 은상대의 '酒' 文化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갑골문 字形의 구조와 本義 탐구는 殷商代 酒 文化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하다.

〈參考文獻〉

- 盧連成, 《青銅文化的寶庫》, 成都: 四川教育出版社, 1966.
 段玉裁, 《說文解字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1.
 中國社會科學院研究所編, 《殷墟婦好墓》, 北京: 文物出版社, 1982.
 唐雲明, 《藁城臺西商代遺址》, 《河北學刊》, 石家莊: 河北省社會科學院, 1984.
 李學勤, 《中國美術全集 工藝美術編青銅器》, 北京: 文物出版社, 1985.
 裘錫圭, 《文字學概要》, 上海: 商務印書館, 1988.

- 馬振亞·張振興,《中國古代文化概說》,吉林:吉林大學出版社,1988.
- 歐潭生,〈羅山天湖商周墓地〉,《考古學報》,1986.
- 胡厚宣,《殷墟甲骨文引論·序》,長春:東北師範大學出版社,1993.
-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編著,《二里頭陶器集粹》,北京:中國社會科學出版社,1995.
- 양동숙,〈甲骨文으로 본 商代の 疾病〉,《中語中文學》第24輯,서울:1996.
- 夏商周斷代工程專家組,《夏商周斷代工程1996-2000年階段成果報告(簡本)》,北京:世界圖書出版社北京公司,2000.
- 程長新·程瑞秀,《古銅器鑑賞》,北京:北京工藝出版社,2001.
- 陳詔,《中國饌食文化》,上海:上海古籍出版社,2001.
- 김선희,〈甲骨文에 나타난 商代 食文化 研究〉,서울:숙명여대석사논문,2002.
- 정춘수,《한자오디세이》,서울:부키,2003.
- 許慎,徐鉉校定,《說文解字(簡本)》,上海:上海教育出版社,2003.
- 陳濟,《甲骨文字形字典》,北京:長征出版社,2004.
- 徐中舒,《甲骨文字典》,上海:四川辭書出版社,2006.
- 梁東淑,《甲骨文解讀》,서울:書藝文人畫,2007.
- 염정삼,《설문해자주》,서울: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2007.
- 馬如森,《殷墟甲骨文實用字典》,上海:上海大學出版社,2008.
- 駢宇騫,《實用語海漢字字源》,北京:萬卷出版社,2009.
- 서진영,〈중국문화에 대한 이해(知道點中國文化)〉,대구:계명대학교 통변역대학원 석사논문,2009.
- 胡洪琮,〈略論殷商時期的酒器〉,《農業考古》,2012.
- 孫婷婷,〈先秦時期酒文化探析〉,哈爾濱:哈爾濱師範大學 석사논문,2012.

〈Abstract〉

Examination on 'Drinking' Culture during Yin-Shang Dynasty Revealed with Oracle-bone Inscriptions

This thesis is intended to study the "Drinking" culture during Yin-Shang Dynasty by analyzing the shapes of Chinese characters related to drinking that are revealed with oracle-bone inscriptions. Chinese people give an importance to eating enough for them to think that food is the best among the 3 basic elements of life, that is, clothing, food and housing. Regarding to eating culture, since liquor was often used to offer to the

almighty or to serve important quests, liquor was considered as the most important thing among all kinds of foods. Especially, liquor played an important role related to various kinds of memorial services during Yin-Shang Period. Drinking culture which was originated from the culture under which liquor was used as a kind of stuff for memorial service has influenced on various aspects including life styles, literature, ideology, languages and characters, etc., while having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areas of material life, emotional life and social networking for thousands of years.

Oracle-bone inscriptions as the records of the people of Shang dynasty which was the first historical period of China have been the most direct and important empirical material for studying the ancient scripts and history of China, especially, the characters, history and culture of Shang dynasty consistently. The shapes of characters of the oracle-bone inscriptions reflect the subjective shapes of the then people as well as reflecting the objective real facts in that period. Since the then people's awareness and the cultural phenomena closely related to their lives are reflected to the process of creating characters, it can be said that a study on the shapes of characters of oracle-bone inscriptions is the foundation of a study on the culture of Yin-Shang Dynasty. That is, an analysis of the structure of the shapes of characters of oracle-bone inscriptions and an exploration of the fundamental meanings of such characters is a prerequisite necessary for understanding the culture of Yin-Shang Dynasty exactly. In this thesis, the writer focuses on a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the characters and the culture of Yin-Shang Dynasty by examining the oracle-bone inscriptions and the stuffs for memorial services related to liquor.

Keywords: Oracle-bone Inscriptions, Yin-Shang Dynasty, Drinking Culture, Bronze Liquor Bowls

이 논문은 2014년 4월 15일에 접수되어 2014년 5월 15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4년 5월 20일에 편집회의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